

마두라開發 外資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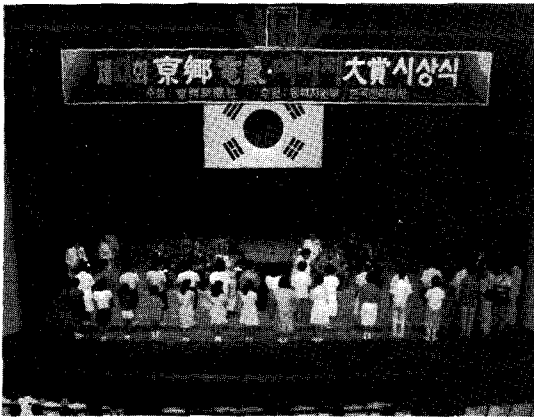
英國에서 7천만弗 導入 合議

第4回 京郷 電氣·에너지大賞 시상

-大賞에 古里原子力 第1發電所-

京郷新聞社 주최 京郷 電氣·에너지大賞 施賞式이 지난 7월 19日 상오 10時 세종문화회관에서 李鳳瑞동자부장관, 韓鳳洙 한국전력공사 사장, 盧哲容 경향신문사 사장 등 관계인사와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盧哲容사장은 이날 式辭에서 에너지와 국가경제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원활한 에너지원의 확보 및 代替에너지 개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외부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石油依存脫皮 정책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施賞式에서 大賞은 國內 최초의 原子力發電所로서 값싼 電氣생산에 공이 큰 韓電 古里原子力 第1發電所가 차지했다.

또한 4개 부분의 本賞은 기술부분에 韓國機械研究所의 船型推進室이, 관리부분에 韓電 舒川火力發電所가, 원자력부분에 科學技術院 尹昌洙 책임연구원이, 국민봉사부분에는 韓電 仁川支社 李鍾南 과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경향 전기·에너지大賞은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과 범국민적 에너지사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와 韓電의 후원으로 경향신문사가 제정한 상으로써 금년에 제 4회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해역에 투입된 政府支援金을 회수하기 위해 이지역의 가스田을 국제 성공불자금을 넨리코스((NON RECOURS E) 방식으로 도입, 개발키로 했다.

李鳳瑞 동자부장관은 8월30일 西 마두라해역 KE 5 광구의 가스田을 外資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교섭을 벌인 결과 英國의 구나노사社로부터 7천만달러를 도입키로 합의, 오는 9월중 우리측 사업주체인 코데코社와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長官은 구나노사社와 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0월께 生産施設建設에 착수, 늦어도 90년중반부터는 가스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長官은 또 KE 5 광구에서 발생하는 우리측 가스판매 수입은 향후 15年間 1億3,000萬 달러 상당이 돼 그동안 마두라유전에 투입된 政府支援金 8천1백만달러(원금기준)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나노사社는 계약체결후 2개월간 모두 7천62만달러를 투자, KE 5 가스田지역 생산기지(플랫폼)와 파이프라인(해저 42km 육상 28km)을 건설하는 대신 생산개시후 7년간 매년 1천5백만~2천만 달러를 회수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潛熱 貯藏材 새로 개발

韓國動力資源研究所에서

太陽熱 設備에 낮에 太陽熱을 저장했다가 난방이 필요한 밤에 꺼내어 쓸 수 있는 效率의인 潛熱貯藏材가 새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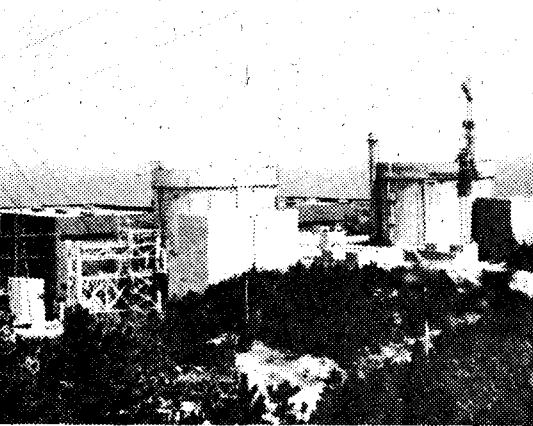
지난 7월 28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韓國動力資源研究所에서는 보통 除雪劑 등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과냉각과 침전 방지를 위해 조액체와 구리핀을 사용하여 潛熱貯藏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한다.

潛熱貯藏材는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할 때 열을 축적 발산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國內 原子力發電 利用率 1987年 79.9%로 增加

國內 原子力發電所의 利用率이 1984年의 70.1%에서 87년에는 79.9%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일 動力資源部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78年 국내 최초로 古里原子力發電所 1호기가 가동된 이래 초기 5年間의 原電 이용율은 60%선으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85년 이후부터 이용율이 크게 增加하는 추세를 보여 85년 77.3%, 86년 73.2%, 87년 79.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發電原價도 낮아져 84년 이용률이 70.1% 당시의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85년에 390億원, 86년에 70億원, 87년에는 890億원 등 총 1,350億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炭鑛에서도 NATM工法 도입 補修工事 줄고 火災위험 낮아

地下鐵공사 등에서 널리 활용된 NATM 工法이 炭鑛에서 도입, 확산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널리 보급되지 않은 작업방식이지만 東原炭座를 비롯하여 三陟, 大韓石炭公社 등에서 이 공법을 도입해 성과를 거두면서 이의 확대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7月 22日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韓寶炭鑛은 2月에 韓國動力資源研究所 鑛山工業研究室에 설계를 의뢰해 완성한 뒤 현장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NATM工法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地下鐵工事に 도입한 첨단공법으로써 이를 炭鑛에 도입해서 막장을 확장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補修作業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坑道の 有效面積을 확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耐久性이 강해 坑内の 火災위험을 감소하고 通氣저항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工法은 年間 30萬톤 이상의 石炭을 생산하는 炭鑛에 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咸太炭鑛, 京東炭鑛도 이 공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工法을 도입하는 데는 일반 작업보다 經費負擔이 높아 1m 굴진의 경우 190萬원에서 200萬원이 소요된다.

이점을 감안 大韓鑛業振興公社는 이들 炭鑛이 NATM工法을 도입할 경우 전체 시공비의 50% 정도 지원할 것을 강구하고 있다.

火力發電所 4基 追加建設 '96年에 總設備 容량 2,800萬KW

政府는 電力需要가 급증추세를 보여 90년대 電力需給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만KW급 火力發電所 4基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될 發電所는 당초 계획했던 原子力發電所 2기, 유연탄화력발전소 7기 등 9기에서 13기로 늘어나게 됐다.

動資部는 8월19일 자원개발계획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90년대 이후 建設될 발전소의 발전량은 현재의 원자력 2기, 유연탄 7기등의 약620만KW에서 원자력 2기, 有煙炭 11기 등 모두 820만KW로 200만KW가 늘어나 96년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2,800만KW로 증가되며 설비에 비율은 23.5%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出力最大의 燃料電池 개발 東京電力에서 都市型 發電計劃

日本の 東京電力에서는 出力 1萬1,000KW의 世界 最大의 水冷式 磷酸型 燃料電池를 千葉縣 五井火力發電所 구내에 오는 10월부터 建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1991년에 시험을 거쳐 1994년에는 再開發地域을 대상으로 熱併合發電 시스템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燃料電池의 本体는 日本 東芝社와 美國의 U·T社가 합병설립한 IFC(美코넬카州)에서 생산한 製品을 설치하고 送電損失을 감소하기 위하여 소비지 중심으로 발전소를 분산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메틸알콜發電時代 개막 燃料電池發電設備 시험운동

韓國動力資源研究所는 오는 2000年代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인 燃料電池發電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發電設備를 지난 7月 20日 忠南 大德研究団地내에 처음으로 가동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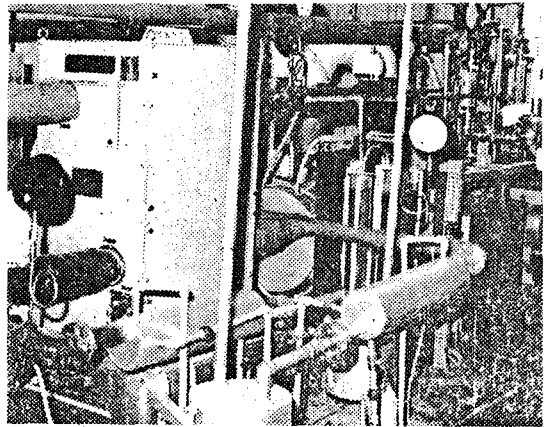
韓國電力이 4億원의 연구비를 지원, 韓國動力資源研究所와 공동으로 개발한 出力 5 KW의 실험용 發電設備는 自然에서 自生하는 풀이나 농작물 줄기로부터 싼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메틸알콜을 燃料로 사용하는 磷酸型 燃料電池 發電設備로 미래의 電力技術인 燃料電池에 대한 각종 電力特性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燃料電池發電기술은 天然가스와 같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電氣化學 반응으로 電氣를 생산하는 고효율의 새로운 최첨단 발전기술이다.

종래의 火力發電기술은 石油나 石炭 연소에 의한 發電방식으로 최신설비에 의한 발전효율이 40%인 반면에 연소과정이 불필요한 燃料電池 發電방식은 발전효율이 50~60%에 달하는 획기적인 기술로서 電力부문에서 대규모 에너지節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발전방식은 發電中에 발생하는 熱을 회수하여 난방 및 온수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發電所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형건물 등에 설비되어 필요한 電力과 熱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節約技術센터는 이 설비를 이용하여 燃料電池기술에 관한 電力特性 실험과 함께 앞으로 最適 운전조건 및 설비자동화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방침이다.



原油 660萬배럴 追加 導入 57日分 備蓄量 증가 확보

정부에서는 年内에 原油 660萬배럴을 추가로 도입하여 備蓄日數를 57日 分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7月 20日 石油開發公社가 國會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月末 현재 備蓄油는 原油 3,108萬 2,000배럴로 全國 使用量 50日分이며, 제품용 원유는 177萬 5,000배럴로 수도권 30日分, LPG는 4萬 8,000톤으로 전국 사용량 20日分 등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만·두바이 등으로부터 7月부터 12月末까지 660萬배럴의 原油를 도입하여 총비축분을 50日分에서 57日分으로 늘리기로 했다.

OPEC 이란·이라크 終戰되어도 石油生産協定 合議 難望

이란·이라크戰이 종식되어도 OPEC가 새로운 石油生産協定에 합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당초 전망과는 달리 國際原油價格의上昇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美國과 페르시아灣의 石油市場 분석가들이 지난 7月 20日 말했다.

美 분석가들은 이란과 이라크가 내년 上半期의 產油量 결정을 위해 오는 11月 열리는 OPEC 각료회의에서 각각 自國의 생산쿼터 증가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아니면 할당된 쿼터를 무시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양국은 오히려 다른 會員國들의 쿼터감축을 요구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OPEC회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라크戰의 종식으로 OPEC가 종전보다 團結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알·오데이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石油長官이 밝힌 배럴당 18달러선의 OPEC 공식石油價의 회복전망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年間의 전쟁을 통하여 상호의 심과 적대심을 키워온 이란과 이라크가 단순히 전쟁의 종식만으로 그간의 오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產油量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비즈니스世界



다시 타오르는 마두라油田 코데코社 1年침묵개고 再試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國營 페르티미나社와 共同으로 油田을 개발해 온 코데코에너지社(社長 崔桂月)는 1차로 개발한 K-2 油田의 부진에 따른 1年間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가스田 開發에 나서 재도전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石油埋藏量이 확인된 카말지구의 共同開發과 함께 石油과 가스의 賦存可能性이 높은 K-10, K-11지구에 대한 探査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西마두라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原油의 自給率을 2001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한 우리의 海外油田 開發事業은 북예멘의 마리브油田 등 全世界 11個 地域에서 더욱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에서 地熱發電 再開發 東北·九州 6個 地區에

日本에서는 공해 없는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는 地熱을 이용하여 發電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月 6日 日本 通商省과 에너지庁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民間企業이 시험을 계속해 온 東北 九州의 6개 地區에서 蒸氣井이 商業化의 가능성이 있어 年內에 電力會社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地熱發電은 1973년 石油波動 이후 代替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1975년경부터 개발에 착수, 9개 지역에 21萬1,000KW의 出力을 확보하였으나 그 후 原油가격의 下落으로 火力發電의 生産原價가 떨어져 地熱開發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民間企業에서 생산비를 투입 6개지구에서 20萬KW 상당의 발전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地熱發電은 KW당 발전원가가 石油, 火力發電에 비해 높아 長期的 안정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核廢棄物 장기저장시설 韓國에너지연구소에서 計劃

原子力發電所에서 나오는 放射性 廢棄物 처리 문제를 科學技術處 산하 韓國에너지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된 것으로 지난 8월 4일 알려졌다.

政府에서는 副總理 주재로 제220차 原子力委員會를 열고 그동안 部處間의 의견을 조정해 온 核폐기물 관리와 1兆원 상당의 폐기물 관리기금 운영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대한 基本方針은 中·低準位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 地中埋沒式의 永久처분시설을 1995年末까지 건설하며 사용후 核燃料은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관한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 저장 관리를 하며 이를 위한 중간 저장시설을 1997年末까지 原子力發電所 부지 이외에 건설키로 하였다.

또한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기까지 中·低準位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核燃料은 韓國電力이 原電부지내에서 관리하며 放射性 同位原素의 중점관리를 위한 별도 방안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은 韓國 에너지연구소에서 오는 9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

新型 高速增殖爐를 설계 日本原子力연구소에서

日本 原子力연구소의 新型爐 檢討特別 팀에서 지난 7월 2일 高速增殖爐(FBR)의 경제성을 종래보다 2.3배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爐를 설계하였다고 한다.

현재 MOX라는 酸化物燃料 대신에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合金으로 이루어진 金屬燃料를 이용 소비한 核燃料의 1.8배가 되는 새로운 플루토늄燃料를 생산하는 燃料增殖 능력을 갖게 되었다.

새기술의 등장으로 현재 경제성이 벽에 부딪힌 FBR의 개발 건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한다.

海外資源開發 적극 지원 大韓鑛業振興公社에서 세미나

지난 7월 11일 大韓鑛業振興公社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개발 추진되고 있는 海外資源은 美國, 濠洲,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韓電, 現代, 浦鐵, 大成産業, 鮮一商船, 韓印尼資源 등 6개 업체가 有煙炭과 無煙炭을 개발하고 있고 韓電, 력키金星, 大宇 등 3개업체는 캐나다, 스와질랜드, 濠洲에서 有煙炭, 우라늄, 無煙炭 탐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海外資源 중에서 美國, 濠洲, 캐나다 등의 有煙炭은 이미 개발되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美國과 캐나다의 우라늄鑛山은 오는 1990년부터 生産에 들어갈 예정이다.

大韓鑛業振興公社는 이와 관련 海外資源 개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海外 進出業체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濠洲의 鑛業專門家를 초청 濠洲와 中國의 鑛業概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基礎科學·原子力·에너지 등 韓·西獨 科學技術 협력강화

지난 8월 6일 李寬 科技處장관은 果川 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하인즈 리첸후버 西獨 연구기술부 장관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韓·西獨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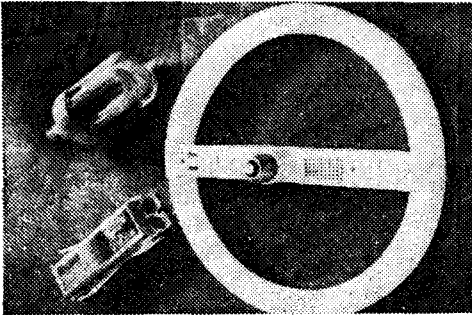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基礎科學, 原子力,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西獨 과학기술 관계기관의 共同研究開發이 본격화되며 高速電鐵, 에너지 관련기술 등 공동관심 기술에 대해 양국의 學界, 產業界, 정부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原子力분야는 原子力安全센터와 西獨 GRS가, 비파괴기술은 한국표준연구소와 西獨 BAM TÜV 등 관련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된다.

電球式형광등 개발 생산 白熱電球에 비해 50%節電 효과

지난 8월12일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케트電光(株)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구식 전자형광등을 개발 생산체제에 들어 갔다고 한다.

지난 해 로케트電氣와 협력관계를 맺고 형광등 시험에 참여한 이 회사는 종전의 白熱電球에 비해 50%이상의 節電效果와 수명, 밝기가 2~3배인 32W용 씨클라인과 13W용 U형 등 2종의 電球式 電子형광등을 개발, 본격적인 生産으로 市販할 계획이다.



필란드, 蘇聯電氣輸入量 늘려 蘇聯과 90萬KW 10年 契約

필란드는 蘇聯으로부터 電氣輸入量을 1993년부터 50%를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8월 1일 헬싱키 파이내셔널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양국의 國營電力會社는 3年間の 협상 끝에 1993년부터 10年동안 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액은 6億 6,600파운드인 양국의 단일거래액 수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따라서 필란드는 1993년까지는 매년 蘇聯으로부터 60萬KW의 電氣를 공급받게 되며 그후부터는 90萬KW로 늘어나게 된다.

石炭産業 合理化 적극 추진 動資部에서 關係法 개정

정부는 石炭産業 合理化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關聯法의 改正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27일 동력자원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체 炭鑛의 67.6%에 이르는 244개의 零細炭鑛이 정비됨에 따라 離職할 탄광 근로자 수도 2萬 5,873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整備事業의 財源確保와 정비에 따른 補償基準 지원 범위, 이직자 취업 및 전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현행 石炭産業法의 改正案이 필요하게 되어 産業合理化 대상업종으로 지정, 租稅法에 따른 정비탄광의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조치도 시행키로 하였다.

高熱鎔岩利用 發電 추진 美國에서 650萬달러 투입

地球의 地表와 中心核 사이에 있는 高熱의 마그마(鎔岩)를 이용하여 電力을 생산하는 야심적인 계획이 지난 8월11일 美國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에너지부의 마그마에너지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4年間 650萬달러(원화45億원)를 투입하여 地下 10Km까지 탐사정을 뚫어 熱交換장치를 설치한 뒤 펌프로 물을 내려 보냈다가 超高温 상태가 된 蒸氣를 회수 發電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탐사 시추장소는 美國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인데 약 70萬年 전에 火山이 폭발한 곳으로 많은 鎔岩을 뿜어내는 곳이다.

지금까지 地熱을 이용한 發電形態는 火山活動에 의해 加熱된 地下水에서 蒸氣를 뿜아내는데 그쳐 發電量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美國의 科學者들은 이번에 마그마 에너지 抽出이 성공할 경우 美國內에는 地下 10km까지 마그마가 상승한 곳이 많아 이같은 방법만으로 美國이 年間 소비하는 電力量의 600~6,000 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電力使用量 1,365萬 6千KW 8月 10日 가마솥 더위

연 2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에도 楊平지방이 37.2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 서울 36.6도, 全州 35.7도 등 全國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았다.

특히 서울지방은 지난 58年 6月 24日 37.2도를 기록한 이래 30년만의 최고기온을 보였으며, 이날 전국 대부분 地域이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熱帶夜현상이 계속돼 잠을 설치야 했다.

한편 韓國電力에 따르면 이날 하오 3時 現在 서울의 최대사용전력이 時間當 1,365萬6,000kw를 기록, 9日 하오 3시의 시간당 1,348kw의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潤滑油事業 新規 참여 京仁에너지 경영多辺化

京仁에너지(社長 成樂正)는 潤滑油事業에 신규로 참여하는 한편 시설의 현대화와 증설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日産 1,000배럴 규모의 윤활유 배합설비를 내년 11月까지 40億원을 투입하여 精油工場 부지내에 건설기로 하고, 최근 英國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社와 윤활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京仁에너지는 이 윤활유 제조설비가 완공되는 1989年 말부터 자동차, 선박, 산업용 윤활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短期 石油價格의 展望 에너지經濟研究院에서 分析

OPEC 平均油價는 \$13의 今年 最低價格에서 약간 回復, 8月 11日 現在 \$13.7을 나타내고 있다. 계속되는 市場弱勢要因(過剩生産, 在庫增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은 ① 8月初의 OPEC 價格委員會 開催 ② 이란·이라크 休戰에 따른 OPEC 結束力 強化 可能性 增大 ③ 最近 油價가 바다勢에 到達해 있다는 一般的 認識 등 心理的 要因이 反映된 結果이다.

향후 油價는 今年 3/4分期까지 現水準을 유지하겠으나, 4/4分期에 이르면 季節的 要因 및 需要增大에 따라 \$1~2 정도 상승할 可能性이 크다. 今年 4/4분기 石油需要는 51.5百萬b/d로서 前年 同期對比 2.4%의 높은 增加가 豫想되고 있다. 한편, 이란·이라크 休戰은 油價上昇 要因과 下落要因의 두가지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11月末로 예정된 OPEC 定期總會까지는 이·이休戰이 큰 影響을 나타낼 것으로 期待되지 않고 있다.

油價上昇要因을 살펴볼 때, 이란·이라크 休戰이 이라크의 쿼터復歸를 비롯하여 OPEC 結束力을 強化시키는 契機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實現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란·이라크 休戰協商에는 國境·戰爭責任糾明 등의 難題가 가로 놓여 있어 OPEC의 政策決定을 制約하고 있으며, 아울러 OPEC은 UAE의 쿼터增大 要求·産油量 概念의 定立 등을 함께 解決해야 하는 負擔을 안고 있다.

油價下落要因을 살펴볼 때, 이란·이라크의 休戰은 原油의 追加供給(이란: 0.8百萬b/d, 이라크: 1.2百萬b/d) 可能性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供給能力 擴大에는 兩國 모두 3個月 内外의 準備期間이 必要하다. 또한 이란 및 이라크는 OPEC 政策에 대한 協調意思를 表明하고 있어 急激한 物量增大는 自制할 것으로 보인다.

主要機關別 OPEC 平均油價展望(\$/b)

구분	1988年			
	1/4	2/4	3/4	4/4
DRI	14.9	15.0	13.8	14.6
歐美石油專家*			14.3	15.8
Kidder Peabody社			12.4	15.5
Thomson Mckinnon社			15.4	17.2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14.6~14.9	16.4~16.9

*19個社(美國 15社, 英國 4社) 平均

韓電 蔚珍原子力發電所 1 호기 稼動 · 容量 95萬KW

여덟번째 原子力發電機인 施設容量 95萬KW 의 蔚珍 1 호기(慶北 蔚珍군 北면 富邱리 소재)가 착공 6년 7개월만에 완공돼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原子力에 의한 발전시설용량은 571萬 6,000KW에서 666萬6,000KW로, 전체 발전설비는 1,902萬1,000KW에서 1,997萬1,000KW로 늘어났다. 또 原子力發電 시설용량 비중도 종래의 30.1%에서 33.4%로 높아졌고 가동기준의 생산전력량 비중은 지난해말 현재의 53%에서 56.3%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공사비 1조 596억원이 든 蔚珍 1 호기는 加壓 경수로형으로 1, 2 차계통 모두 프랑스 업체들이 주계약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韓國電力이 사업관리를 주도, 東亞建設에 토건부문을, 韓國重工業에 機電공사를 맡기고 그밖에 국내 제작업체들을 다수 참여토록 함으로써 원전의 국산화율을 40.15%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1 호기 옆에 建設中인 동형의 2 호기는 내년 9 월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韓國電力은 原子力發電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蔚珍 1, 2 호기 건설에 지난 79년 발생한 美國 쓰리마일아일랜드(TMI)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에 의해 설계했고 비상 대응설비와 안전수치 제시판도 90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蔚珍 1 호기의 건설로 원전기술의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 인도네시아 SBR 플랜트建設

(주)대우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Serang 지역에 건설될 SBR(Styrene Butadiene Ru-

bber) 플랜트건설용역을 셀레레스사로 부터 의뢰받아 착수하였다.

이 用役은 스티렌모노머, 부타디엔 등 각종 化學藥品을 연료로 하여 타이머 및 신발제조의 주원료인 범용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완공 후에는 연간 3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금호석유화학 제조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용역, 건설감리 및 시운전과 사업주 교육 등 사업전반에 걸친 用役을 담당하게 된다.

WEC Journal 發刊 會員 原稿 募集

세계에너지會議(WEC)는 WEC 자체 소식 및 에너지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WEC會員 및 기타 機關, 政府, 大學, 에너지 관련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년 1 회 WEC Journal 을 발행하고 있다.

WEC는 이 Journal 제 1 호를 '87年 末에 발간하였는데 국제적인 에너지 관련 잡지로 발전시키고자 제 2 호 발간 준비를 위해 WEC 각 국내 위원회로부터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WEC 韓國國內委員會 /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會員社 및 에너지 관련기관, 개인들로부터 원고를 모집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를 소개할 계획이다.

- 모 집 요 강 -

가. 原稿內容 : -에너지 관련 제반 분야(技術, 財政, 法規, 經濟, 環境 및 社會的인 측면 등 : 未來, 過去 또는 現在)

- 특정국가, 특정지역 또는 汎世界的인 내용

나. 使用語 : 英語 또는 佛語

다. 분 량 : 4,000단어 이내

라. 제출기한 : 1988. 10. 10 / 韓國에너지協議會